



속보: 2011년 12월 13일

진행 중인 택시 입법 협상에 관한 CUOMO 대변인의 성명

“내일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입법 협상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상 회의가 개최됩니다. 현안에는 콜택시(리버리 캡)의 장애인 접근성, 콜택시 허가증의 양도 가능성과 매매, 공항에서 콜택시와 옐로우 캡의 픽업, 장애인용 면허 구입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족, 택시와 리무진 협회 집행력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안 중에서도 5개 보로에서 택시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는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며 연말이 다가오기 협상을 전에 끝낼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지사, 주 입법기관 및 뉴욕시 사이에서 정치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업체 및 옹호단체들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추가 뉴스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